

# 2023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었을까?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3.11.17. \_ Vol.437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르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한국신재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2023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었을까?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찬길

2005년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별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3년 시도별 장애인 복지(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교육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과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 01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란?

##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마련

-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한 지역 간 경제력 차이는 지방세원의 편중으로 나타났음
- 지역마다 상이한 복지 격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저조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차별을 야기함
-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지방간의 재정격차,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등에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여 장애인복지 수준 격차가 벌어짐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수준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수준향상과 격차해소를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5년부터 매년 '전국·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실시하고 있음
- 객관적인 지표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지역별 수준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민선8기 지자체장 임기 시작, 중앙 및 지자체 자료로 객관성 확보

-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는 3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17개 시·도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

광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음

- 2023년 조사는 2022년 12월 31일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였음
- 민선8기 임기 1년 차로 복지(소득 및 경제활동,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13개 지표, 장애인 교육 8개 총 21개 지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음
- 2023년 3월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의견 수렴과 연구진 논의를 통해 지표개선이 이루어졌고, 제도 변경이나 판정이 모호한 지표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정확도 확보를 위해 수정되었음
- 객관적 자료 수집 후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아래 도표와 같이 구분하였음

표1 시·도 복지·교육 비교 조사 등급 구분 기준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지표별 전국 평균값과 최하값의 평균값 미만	지표별 전국 평균값과 최하값의 평균값 이상	지표별 최고값과 전국 평균값의 평균값 미만	지표별 최고값과 전국 평균값의 평균값 이상

### • 2023년 평가 지표

#### ▶ 복지분야(2개 영역, 13개 지표)

- 소득 및 경제활동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지자체의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저상버스 확보 수준,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 교육 분야(8개 지표)

: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장애인 교원 고용률

02

우수와 분발 차이 뚜렷한 장애인 소득·경제활동 지원

■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 하락하고 격차는 벌어져

-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은 지난 조사 56.72점에서 5.31% 하락한 53.71점으로 나타났음
- 최상위와 최하위의 지자체의 점수 격차도 2022년 조사 1.46배(65.16/44.53)에서 2023년에는 1.96배(73.78/37.61)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표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등급별 지자체 현황

분발(3)	보통(7)	양호(4)	우수(3)
강원, 충북, 전남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전북, 경북, 경남	대구, 인천, 대전, 충남	서울, 경기, 제주

최하 37.61점                      전국 평균 53.71점                      최고 73.78점

- 우수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제주로 나타났고 제주는 73.78점으로 최우수 지역으로 나타났음. 강원, 충북, 전남은 분발등급에 속하였고 전

남은 37.61점으로 최하위 지역으로 나타났음

-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제주는 지난 조사 대비 상승,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하락하였음. 경기도는 18.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울산은 -20.05% 하락 폭이 가장 컸음
- 서울과 제주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전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여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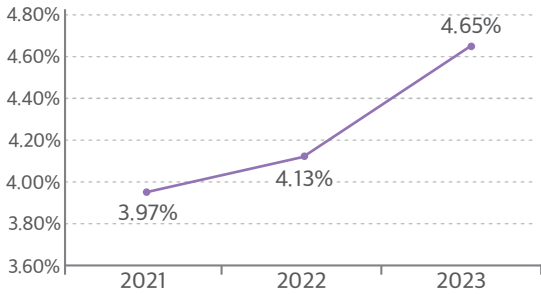
■ 소득 및 고용보장, 장애인이 가장 필요한 부분

-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소득보장은 48.9%로 1위, 고용보장은 3.6%로 3위로 조사되었음
-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 평균 소득의 4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월 평균 지출은 비장애인 가구의 72.6%로 적었지만 소득 격차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득 및 고용에 대한 지자체의 수준향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임

■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전국 대부분 상승, 일부 지역은 하락

-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 4.65%로 지난 조사 4.13%에 비해 12.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1년 조사 3.97%, 2022년 조사 4.13%, 2023년 조사 4.65%로 3년 연속 상승했음

**표3** 2021~2023년 조사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 광주, 충북, 경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은 지난 조사 6.64%에서 27.56% 상승하며 8.47%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보였음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로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경북과 제주는 지난해 3.42%, 3.33%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보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경북은 47.37% 상승한 5.04%, 제주는 45.05% 상승한 4.83%로 조사되었음
- 지난 조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는 이번 조사에서 모두 3.6%를 넘기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상승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모든 시·도 하락, 민간 장애인고용 촉진 필요**

**표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등급별 지자체 현황

분발(4)	보통(5)	양호(5)	우수(3)
서울, 울산, 세종, 경기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대구, 인천, 강원, 경북, 제주	부산, 광주, 전북
최하 3.07%	전국 평균 3.73%		최고 4.55%

-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73%로 지난 조사 4.09% 대비 8.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모든 시·도가 상승한 곳 없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수준이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음
- 서울은 3.07%로 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를 넘기지 못한 유일한 지자체로 나타났음. 울산, 세종, 경기 등도 3% 초반대에 머무르며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분발 등급에 속했음
- 전북은 4.55%로 지난해 4.82%보다는 하락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외에도 부산, 광주, 강원, 제주 등도 4% 이상의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음
-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하며 지자체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었지만, 민간 부문 고용률은 모든 시·도가 하락하며 민간고용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각별한 방안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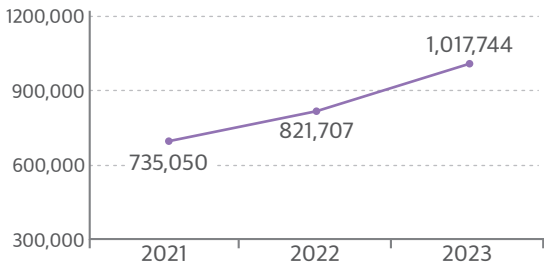
**직업재활시설 예산액과 장애인 이용자 비율 연속 상승, 고용촉진에 영향을 미칠길**

**표5**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지자체 등급별 현황

분발(4)	보통(7)	양호(3)	우수(3)
부산, 인천, 전북, 전남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충남, 경북, 경남	광주, 강원, 충북	세종, 경기, 제주

최하 447,164원      전국 평균 1,017,744원      최고 2,208,895원

**표6** 2021~2023년 조사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액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은 지난 조사 821,707원에서 23.86% 상승한 1,017,744원으로 나타났음
-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지난 조사 대비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이 상승하였고, 경기도는 79.22%가 상승하여 최우수 지역으로 조사되었음
- 부산, 전북, 전남은 지난 조사 대비 상승하였지만 2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분발 등급에 머물러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7**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지자체 등급별 현황

분발(4)	보통(5)	양호(6)	우수(2)
울산, 충남, 전북, 전남	부산, 인천, 충북, 경북, 경남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제주	세종, 경기

최하 3.34%      전국 평균 6.52%      최고 11.38%

-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도 전국 평균이 6.14%에서 6.52%로 상승하며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 대구, 대전, 충북, 전북, 제주는 하락하였고 나머지 시·도는 지난 조사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는 11.38%로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3.3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우수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이용자 비율이 3.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지원 예산액 또한 4.93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재활시설 예산 지원과 이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격차가 벌어진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장애아동수당 우수 지역과 분발 지역 차이 두드러져**

- 2023년 조사결과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수준은 평균 152,999원으로 2022년 조사 139,823원 대비 9.4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가 상승하였고,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은 하락하였음



- 제주는 지난 조사 131,030원에서 210.43% 향상된 406,762원으로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음. 세종도 2022년 조사에서 분발 등급에 속하였으나 2023년 양호 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며 높은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대구는 38.17%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광주와 충북도 지난 조사 대비 하락하며 분발등급에 머물렀음
-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아동의 비해 의료 및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더 크므로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전국 평균지난 조사 대비 90.98% 상승**

-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수준은 전국 평균 314,878원으로 지난 조사 164,874원 대비 90.9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광주와 세종은 가장 분발이 낮은 곳으로 나타났음. 특히 세종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하였음
- 세종은 37.84%의 하락률을 보이며 지난 조사 우수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서울은 244.71%가 상승하며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였음
- 울산, 강원, 광주, 전남은 2022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전국 평균 이하 값을 기록하여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수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됨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역 따라 3.48배 격차 보여**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임

**표8** 지자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등급별 현황

분발(5)	보통(5)	양호(2)	우수(5)
세종,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전북	광주, 울산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제주
최하 0.41%	전국 평균 0.87%		최고 1.43%

- 2023년 조사 결과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제주는 1%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지자체는 1% 미만으로 조사되었음
- 인천과 충남은 1.43%로 최우수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제주는 1.2%, 광주와 울산은 1.14%로 조사되었음
- 나머지 시·도는 1%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남은 0.41%의 구매비율을 보이며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음
- 최우수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차이가 3.48배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고용과 소득,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1%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구매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 마련이 필요함



### 03 장애인 이동권, 우수지역은 굳게일학! 분발지역은 도토리 키재기?

#### 특별운송수단 지역 간 격차 지난 조사 3.71배에서 6.93배로 늘어

-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장애인전용), 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 수를 기반으로 한 지표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219.15%로 지난 조사 167.97%보다 33.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은 지난 조사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565.45%를 기록하였고, 인천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81.5%로 조사되었음



출처: 2023.9.21. NEWSIS. 권창희 기자

- 서울은 2023년에 단계적으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늘려 운행 규모를 1,600대에서 8,600대로 확대한다고 밝혔음. 바우처 택시 요금도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것을 발표함. 이용회수도 월 40회에서 60회 늘려 장애인의 바우처 택시 이용이 용이해질 예정임
- 장애인콜택시 법정의무대수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바우처 택시를 적극적으로 도입

할 필요가 있으나, 부진한 지자체보다 달성률 채운 지자체의 바우처 택시가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장애인 이동권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표9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등급별 지자체 현황

분발(8)	보통(2)	양호(5)	우수(2)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경기, 전남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서울, 부산

최하 81.50%                      전국 평균 219.5%                      최고 565.45%

- 서울, 부산은 우수지역에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양호지역으로 나타났고 경기, 전남은 보통 등급,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남
-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이 중 경북, 경남은 올해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과 방안마련을 반드시 해야 함
- 우수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 지난 조사 대비 약 1.8배 정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분발 등급에 속한 지역 뿐 아니라 보통, 양호 등급의 지자체도 특별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시도를 해야 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2026년까지 중증장애인 1인당 150명 기준의 특별교통운송수단을 1인당 10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86%의 법정 운영대수 비율을 100%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함. 이 외에도 24시간 운영, 광역 간 이동 등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음
-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





원센터 운영이 국비 지원이 계획된 만큼 분발이 필요한 지자체는 국비지원과 함께 지자체 예산을 늘려 특별교통운송수단 확보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

**■ 확보 더딘 저상버스, 서울과 타 시도 간 격차는 더욱 증가 추세**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 (국토교통부)**

**▶ 저상버스 도입 목표**

- 전국 2016년 19.0%, 2021년 42.0% 2026년 62%(전망)  
(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

**▶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 26.28%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 2023년 조사결과 전국 저상버스(대형저상버스) 도입률은 26.28%로 나타났음. 서울이 유일하게 60%를 넘겨 달성하였고 4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있는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2021년 전국 42.0%였으나 실제 달성 실적은 30.6% 조사되었음

- 서울은 지난 조사 59.66%에서 6.25%가 상승한 63.39%로 조사되어서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에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음
- 충남은 10.20%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저상버스 확보율을 기록하였고, 울산도 11.34%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하위권인 충남, 울산과 최우수지역인 서울의 저상버스 확보율 격차는 6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장애인의 버스 이용의 격차가 심할 것으로 보임
- 울산, 충남, 경북은 지난 조사에서도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특히 울산과 경북은 지난 조사에 비해 더욱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음
- 21년 실적 30.6%에서 2배 이상 목표치를 잡은 상태이나, 23년 조사(2022년 12월 31일 기준) 26.28%의 결과를 보면 정부 및 지자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서울 외 지자체는 이동편의 증진계획 목표치에 근접조차 하지 못한 몇 년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획기적인 저상버스 확보 방안이 필요함

**표10 저상버스 확보율 등급별 지자체 현황**

분발(4)	보통(7)	양호(5)	우수(1)
인천, 울산, 충남, 경북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서울

최하 10.20%                      전국 평균 26.28%                      최고 63.39%

**■ 해외 저상버스 확보율, 우리나라와 얼마나 차이 날까?**

**• 영국**

- 영국의 경우 2004년 저상버스 확보율은 52%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 100%를 달성하였음.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 2015년에 100%를 달성하였고, 2020년 기준



웨일즈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10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	런던	대도시권	중소도시권
2004	93	49	42
2005	92	54	45
2006	96	62	54
2007	98	70	59
2008	96	78	66
2009	98	86	71
2010	99	90	76
2011	99	93	81
2012	99	94	87
2013	99	97	91
2014	99	98	92
2015	100	98	94
2016	100	99	97
2017	100	99	98
2018	100	100	98
2019	100	100	99
2020	100	100	99

자료 출처: 영국 교통부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한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 기획 최종보고서. 한국교통안전공단. 2023. 3.

버스(초저상버스)로 구분하며 2019년 기준 저상버스 확보율 89.1%(논스텝버스 61.2%)로 조사되었음

- ※ 윈스텝버스: 저상면-바닥 65cm 이하
- 논스텝버스: 저상면-바닥 30cm 이하
- 일본은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베리어프리신법)」제18조 개정을 통해 2000년 신규 도입하는 노선버스에 대하여 저상면이 65cm 이하인 저상버스(윈스텝 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음
- 논스텝버스(초저상버스)는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아 보조금 등을 통해 도입을 독려하여 장애인 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

- 미국의 경우 1990년 7월 26일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버스 도입 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규정함
- 운송서비스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서비스가 있어도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면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를 통해 미국에서 운행 중인 대부분의 버스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 가능한 상태임

### 일본

-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한 환경에 있는 일본은 저상버스를 윈스텝 버스(준저상버스), 논스텝

### 저상버스 확보와 병행해야 하는 장애인 버스 탑승 문화 개선

- 우리나라의 저상버스 확보율이 목표치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음
- 저상버스의 확보율이 상승함에 따라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률도 함께 올라가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저상버스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음
- 승객이 많은 시간인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며, 승객이 없어도 탑승을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다수 발생함

### 승차거부와 탑승장치 고장으로 인한 어려움

-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sup>1</sup>에 따르면 장애인이 저상버

<sup>1</sup>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2019.1. 김용진



스 승차거부를 당한 경험이 48.0%로 2명 중에 1명은 저상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승차거부 이유로는 승객이 많거나 만차여서, 경사판 작동의 조작 미숙 또는 고장이 나서, 버스기사가 다음 버스를 타는 것을 권유해서 등으로 조사되었음. 배차간격이 길어 오랜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도 작동상의 문제, 운전기사의 거부로 인해 버스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독일의 경우 수동식 발판을 사용하여 고장이 없고 신속하게 버스기사가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 또한 휠체어 장애인이 버스를 탑승하려고 하면 앞문을 잠그고 휠체어 장애인을 먼저 탑승시키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있지만 급한 사람은 뒤 버스를 이용하거나 스스로 하차하고 탑승하는 장애인에게 불만을 표시하지 않음

**어렵게 탑승하고 나서도, 눈치보아야하는 상황**

- 저상버스를 기다리고 어렵게 승차하더라도 장애인이 버스 이용에 어려움은 남아있는데 승객, 운전기사 시선, 공간 확보의 어려움임
-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는 승객들도 있지만 당황하거나 동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승객, 계속 쳐다보는 승객들도 많이 있음
- 또한 운전기사도 장애인의 탑승을 불편해하거나 꺼려하는 모습은 장애인이 버스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임
- 공간이 부족한 경우 운전기사가 장애인에게 다음 버스를 타기를 권유하거나 장애인 당사

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운전원이 공간 마련을 요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 영국의 경우 2012년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려 했지만 운전자의 요청으로도 유모차와 여성이 이동을 거부해 탑승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음
- 버스를 놓쳐 약속시간에 늦은 당사자는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5,500파운드의 손해배상을 받았고 영국은 버스 운전원이 휠체어 공간을 비우는 것을 강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잠시 운전을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였음
-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상버스 확보와 더불어 장애인이 실제 버스를 이용할 시 불편함이 있지 않도록 버스 탑승의 물리적 환경변화와 인식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04** **증가한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 교사·보조인력 충원율도 동반되어야**

**지역 간 격차 커지고 수준은 하락한 장애인 교육 분야**

-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교육 분야 수준은 73.16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80.18점에 비해 8.7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 간 격차는 2022년 1.18배(87.69/74.40)에서 2023년 1.32배



(86.90/65.94)로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음  
 - 17개 시·도 모두 장애인 교육 분야 수준이 하락하였고 대구가 -17.34%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대전은 0.9%로 가장 하락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11 장애인 교육 분야 등급별 지자체 현황**

분발(6)	보통(3)	양호(6)	우수(2)
대구, 인천, 경기, 전남, 경북, 제주	부산, 광주, 강원	서울,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대전, 세종
최하 65.94점	전국 평균 73.16점		최고 86.90점

- 대전과 세종은 2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나타났고 인천, 경기, 경북, 제주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음. 부산, 광주, 강원은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로 나타났음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 상승, 특수교사 법정 충원율과 보조인력 배치율은 일부 지자체만 상승**

- 2022년 특수학급 설치율은 4.40%였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4.76%로 8.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17개 시·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은 12.8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최우수 지역으로 나타났음  
 - 충북, 충남, 전남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2년 연속 동일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제주는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4개 지역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평가되어 특수학급 설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12 특수학급 설치율 등급별 지자체 현황**

분발(5)	보통(4)	양호(5)	우수(3)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인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최하 3.51%	전국 평균 4.76%		최고 6.22%

-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 모든 시·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조사 4.40%에서 2023년 조사 4.76%로 8.1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이 12.89%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음  
 - 충북은 6.22%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광주는 3.51%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충북, 충남, 전남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표13 특수교사 법정 충원율 등급별 지자체 현황**

분발(3)	보통(5)	양호(5)	우수(4)
부산, 인천, 제주	대구, 광주, 울산, 경북, 경남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충북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최하 97.88%	전국 평균 128.99%		최고 153.98%

- 특수교사 법정 충원율은 2023년 조사 전국 평균 128.99%로 지난 2022년 조사 대비 0.67% 상승하였으나, 격차는 2022년 1.38배에서 2023년 1.57배로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경남, 제주 등 절반 이상의 시·도가 지난 조사 대비 하락하였고 제주가 6.98%로 가장 큰 폭

으로 하락하였음

- 전남은 꾸준히 상승하여 2년 연속 특수교사 충원을 우수지역으로 뽑혔고 부산과 제주는 2년 연속 분발 지역으로 나타났음
-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23.83%로 지난 조사 24.34%보다 2.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격차도 2.3배에서 2.7배로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남
- 대전이 38.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경기도는 14.16%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나며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장애인 교원 고용률, 개선될 여지없는 상황**

-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1.72%로 지난 조사 1.98%에 비해 13.1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 간 격차도 1.39배에서 2.16배로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서울,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37.08%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14 장애인 교원 고용률 등급별 지자체 현황**

분발(3)	보통(4)	양호(7)	우수(3)
강원, 전남, 경북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전북, 경남, 제주	서울, 대전, 울산

최하 1.12%                      전국 평균 1.72%                      최고 2.42%

- 서울, 대전, 울산은 우수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2.5%에 못 미치는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보였음
- 전남은 1.12%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으

며 강원 1.26%, 경북이 1.14% 조사되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음

- 전북과 경북은 2년 연속 최하위권에 속하며 장애인 교원 고용률 상승에 대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관련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지자체 노력 절실**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하고 있음
- 유기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7개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은 2022년 499억 원에서 부담금을 절반만 내는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2023년 97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시·도 교육청 일반직의 경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6%를 넘기는 4%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 교원의 경우 전국 평균 1.72%에 불과하기 때문임
- 최근 5년 간 전국 교육 및 사범대학교의 장애인 졸업생은 574명으로 매년 100명 가량으로 나타남
- 장애교원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05

## 격차 커진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해결하려면

### ■ 지난 해 조사에 비해 지역 간 격차 더욱 커져

- 올해 조사된 장애인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은 모두 지난 해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교육 분야는 지난 조사 87.69점에서 73.16점으로 8.76% 하락하고 격차는 1.18배(87.69/74.40)에서 1.32배(86.90/65.94)로 나타남
-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분야는 지난 조사 1.46배(65.16/44.53)에서 2023년 조사 1.96배(73.78/37.61)으로 벌어졌음
- 장애인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영역 또한 지난 조사 1.44배(75.14/52.14)에서 2.5배(67.91/27.39)점으로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교육·복지 주요 정책 및 제도를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으나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져 지역에 따라 장애인이 보장받는 권리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분석에 주목해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교육 수준 격차해소와 수준 향상을 위해 비교·분석하여 발표하고 알리고 있음
- 단순히 비교·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자체

의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 모든 장애인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복지와 교육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매년 발표되는 비교·분석 결과를 지자체장, 지자체를 비롯한 공무원, 광역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향상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 민선8기 지자체장 첫 해, 장애인 분야에 관심 가져야

-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는 민선 8기 지자체장 첫 임기로써 3가지 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민선 7기 지자체장 임기 이후로 처음 실시하는 조사로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확인하고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고 현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
- 이번 조사를 통해 임기를 시작하는 지자체장은 각 지역의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취약점은 개선 할 수 있는 시작점임
- 특히 장애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과 고용, 저상버스, 특별한 송수단 등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장애인 유권자의 힘 보여줘야

- 2022년 6월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결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8명, 기초의회 비례대표 6명 등 총 14명의 장애당사자가 지방의회로 진출했으나 2018년에 비해 16명이 감소했음
- 광역 7개 시·도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장애인 복지 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계와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 2024년은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될 예정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에 따라 장애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 와 교육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202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 자료 집(PDF 형식)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정책뉴스' 카테고리 내 '한국장총자료'에서 누구나 내려 받기 가능함

###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영역 별 점수표

(단위: 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80.06	75.65	82.77	76.69	76.98	86.96	82.55	87.69	75.67	78.02	82.28	84.79	82.04	80.71	74.45	79.70	75.02	80.18
2023	74.96	70.80	68.42	69.43	71.67	86.30	77.32	86.90	65.94	70.81	73.46	76.94	74.80	68.08	67.81	73.63	66.46	73.16
2022 대비 증감률	-6.37	-6.41	-17.34	-9.47	-6.90	-0.76	-6.34	-0.90	-12.86	-9.24	-10.72	-9.26	-8.82	-15.65	-8.92	-7.62	-11.41	-8.76

17개 시·도 장애인 교육 분야 수준

(단위: 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64.62	58.71	62.08	53.13	65.16	61.44	61.50	58.96	57.55	53.51	55.49	50.12	47.49	44.53	55.18	51.51	63.31	56.72
2023	68.23	51.00	53.80	56.12	53.27	58.55	49.17	53.64	68.37	44.83	44.74	58.15	47.47	37.61	47.58	46.77	73.78	53.71
2022 대비 증감률	5.59	-13.13	-13.34	5.63	-18.25	-4.70	-20.05	-9.02	18.80	-16.22	-19.37	16.02	-0.04	-15.54	-13.77	-9.20	16.54	-5.31

17개 시·도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

(단위: 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69.67	69.53	67.93	62.83	63.09	73.16	56.51	67.04	59.35	57.86	64.58	52.14	54.48	57.43	57.04	62.33	75.14	62.97
2023	60.60	44.50	56.21	34.14	46.86	48.59	47.51	46.20	34.78	33.07	27.39	32.96	37.34	46.02	37.62	32.22	67.91	43.17
2022 대비 증감률	-13.02	-36.00	-17.25	-45.67	-25.73	-33.59	-15.93	-31.09	-41.40	-42.85	-57.59	-36.78	-31.47	-19.88	-34.04	-48.31	-9.62	-31.44

17개 시·도 장애인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수준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3년 11월 17일 발행인 김영일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http://www.kodaf.kr)

발행일 2023년 11월 17일 발행인 김영일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